

# 한반도·지구촌·AI·기후... 평화·희망의 길 모색

## 대환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

정육식 외 지음

2024년 지구촌은 혼란스럽다. 매일같이 분쟁, 폭력, 전쟁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남북으로 갈려 대치중인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한반도와 지구촌 문제를 직시하며 발생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문제를 꿰뚫어보는 혜안(慧眼)과 통찰력이 절실한 요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은 평화운동 단체 '평화네트워크'가 신간 '대환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를 기획·출간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등 14명의 안보·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폭넓은 시각에서 한반도와 지구촌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무너짐과 되살림에 관하여'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와 '평화공존의 투 코리아 전략은 불가능한가?', '위기의 한반도, 탈군사주의에서 대안을 찾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5편의 글이 실렸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낯고 좁은 사고의 진보가 이종사고의 문제인에게'라는 글에서 '탈냉전형 대북정책(한반도 평화)과 냉전형 국방정책(강력한 군사력 건설)'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적한다. 정 대표는 "냉정하게 보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그 다리마저 파괴됐다. 그래서 진영논리를 초월한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일영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살핀다.



지난 16일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으로 파괴된 레바논 남부 카나 타운.

/연합뉴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정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고 대화와 타협의 규범이 미성숙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토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대만 양안(兩岸)관계와 한반도와 일본,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재난과 평화 등에 시선을 돌린다. 황용하 평화네트워크 연구원과 이서영 운영위원은 '청년, 우리들의 생각은'에서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는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합

계 노력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밝힌다. 김종대 교수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전쟁과 평화'를 통해 1940년대 핵무기 개발 당시와 AI를 개발중인 현재를 비교하며 유사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전쟁기술의 혁신에 조응하여 반(反)전쟁의 기술은 "인간이 기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육식 대표는 '복합·다중 위기의 시대, 군축에서 희망을'에서 군사분야 탄소배출이 전체 탄소배출의 5.5%(2022년 기준)를 차지한다며 평화 군축(軍縮)이 기후 위기 대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지구촌 문제는 독자들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신간은 미래에 갇힌 듯한 한반도와 지구촌 문제, 기후재난 위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롤리코스터·1만78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운 책

▲외교관은 나의 인생=35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일상과 외교 현장을 담았다. 외교부 입부 후 군축 및 안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저자는 네덜란드, 러시아 등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국제 관계를 다져 왔다. 청와대 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을 거칠 당시 어려움도 겪었으나, 자신만의 사명감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우뚝 서는 데 일조했다. 외교관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러본다. <서교출판사·1만8500원>

▲최선의 직장인=평범한 직장인 중 하나인 작가가 말한 팀원에서 디렉터가 되기까지 분투기를 담았다. 경쟁사로 도주해 버린 회사 대표, 말만 번지르르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배, 무능하거나 애곡된 관점을 지닌 동료들과 함께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도,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현대인에게 행운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몇 안 되는 선택지임을 주지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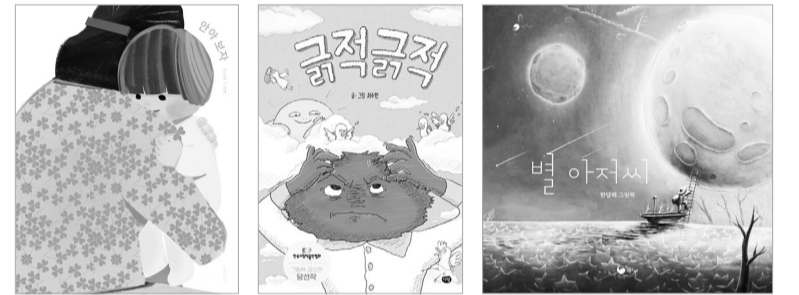
▲무한의 부=찾집 알바에서부터 52조 원 신화를 이루기까지 글로벌 기업가 리카싱의 노후를 담았다. 고난 속에서 통찰력 한 톨 없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한 방법,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 실패 가능성을 0%로 수렴시킨 그의 행적은 자신감을 준다. 부를 쌓는 원칙으로 부리, 레몬주스 전략, 탈피 이분법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타인과 신뢰의 비즈니스 방정식을 쌓아갈 것을 강조한다. 시기 결정적 순간을 읽어내는 혜안을 알려준다. <필로탁·1만8000원>

▲미네소타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를 삶으로 표상되는 도덕철학과 존재론적 형이상학, 심리철학과 과학철학, 인식론 등 총 다섯 가지 테마로 서양 철학사를 둘러본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실재와 실체, 본질과 비합리성이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문답한다. 미네소타 주립대 현지 학생들이 던졌던 질문과 저자의 토론을 통해 인문학의 어려운 부분을 끊어주고 생자의 근육을 키워준다. <불광출판사·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안아 보자=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지만, 때론 부모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아이와 어른이 서로 안아주며 온기를 나누는 위로의 나날이 필요한 법이다. 세대를 초월해 '애정'을 공유하는 돌봄의 순간이 따스한 색깔과 삽화로 구현됐다. 형제, 부모 사이에 필요한 태도와 따스함을 이야기한다. <길벗어린이·1만5000원>

▲그적그적=새치기를 당하거나 물을 튀겼다 오해받고, 눈앞에서 우산이 바뀌었지만 아무 말도 못 하는 '나'. 답답함에 휩싸여 머리를 긁던 나는 어느 날 정수리에 뿔이 났음을 알게 된다. 말하지 못한 마

음이 쭉쭉 자라 지붕처럼 커진 순간 형상을 이룬 것이다. 남몰래 속상한 아이가 느끼는 답답함과 괴로움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다림·1만3000원>

▲별 아저씨=씨앗을 뿌리기 좋은 날이라며 작은 보따리에 별 씨앗을 한 가득 담은 아저씨가 있다. 그는 묵묵히 씨앗을 뿌리며 햇빛, 달빛, 은하수 한 줍씩을 놓아 어둠을 끌어당긴다. 운석이 쏟아지는 날을 모두 견디면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다. 별이 싹을 틔울 때 빛나려면 어둠도 필요하다는 농사법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은유한다. <책고래·1만4000원>

# '백설 공주'·'흥부와 놀부'서 인문학적 가치를 찾다

##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이일야 지음

동화는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지어낸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삽화와 함께한 재미난 이야기는 아이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화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동화를 읽다보면 얻게 되는 교훈이 기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동화를 찾아 읽곤 한다.

동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동화 인문학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가 나왔



다. 철학자이자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일야가 쓴 책은 2020년 '동화 인문학' 열풍을 일으킨 화제작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의 개정판이다. MZ세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동화 2편을 새롭게 추가했다.

책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마음 읽기'에서는 행복, 사랑, 오만, 욕망, 질투, 공감 등의 키워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백설공주'를 통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도깨비잡두'를 읽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2부 '관계 읽기'는 정직, 존중, 책임, 협동, 성실, 거짓말 등의 키워드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관계를 살펴본다.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배려 없는 사랑은 곧 폭력임을 일깨우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작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화가 미친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정서가 담긴 동화 '흥부와 놀부'는 가난하더라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올

것이라는 선인들의 믿음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자본과 물질이 우선시 되어버린 오늘날에는 흥부처럼 살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많은 놀부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저자는 다시 읽을 '흥부와 놀부'를 통해 이런 관점을 벗어나 갑자기 부자가 된 흥부에게 '질투'를 느낀 놀부의 감정에 집중했다. 부모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던 첫째들이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상황이 반전되며 동생에게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며 질투의 감정이 높아지는 일상적인 현상을 흥부와 놀부에 대입시킨 것이다. 철학자는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서재에 동화책 한 권 정도 꽂혀 있다는 것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읽고 싶다. 서재에 가득 흐르고 있는 동화 속 아이와 같은 솔직하고 당당한 기운이 서재를 넘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담앤북스·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